맡겨놓으니 습이 떨어질 것이요 습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하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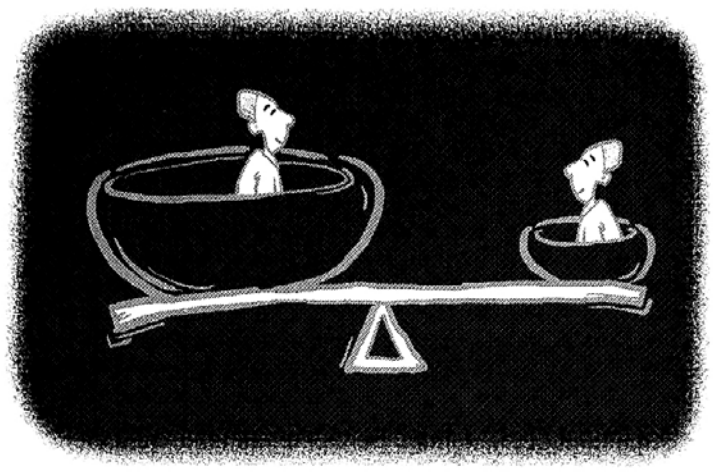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그러니 우리가 모든 착을 놓고 사랑을 한다면 밉다 곱다도 생각 말고 그저 만나면 좋은 말 해주고 "애! 굶지나 않고 다녔니? 나가서 며칠 밤이 됐으니 어디 가서 잘 먹었는지 굶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탁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자각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야단을 치시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언젠가는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착해지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역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행을 한다면 금방 고쳐집니다. 밀더라도 거기다 팽개치세요.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맡겨놓고 관한다면 여기 제주의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인간으로서 자유성을 가지고 자유자재하면서 자식들에게 새 빛을 줄 수 있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로는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묵은 빚을 갚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자식들을 기를 때 부모는 100% 다 줄 수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리가 그러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 그거를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마시고 '의례 그러려니, 나도 자식노릇을 했을 때 그랬더라.' 하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량과 지혜를 갖는다면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억울함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착을 떼고 사는 사람은 분할 것이 없지만 착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떡해서 길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너 장가들고 이렇게 나를 버렸느냐.' 하면서 전과 같이 않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얼구절구 기른 자식을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 주고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놔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다섯을 낳아놓고 고만 부인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한푼한푼 벌어서 좀 먹고 살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철물점을 하는데 아주 부자 부럽지 않게 되었는데 남편이 나이 어린 이쁜 마누라를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인이 울고불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놔줄 수 있지 않느냐.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그냥 가난에 찌들리고 어려서 장가들었으니 당신하고 뭐 이 애정이 있겠느냐. 한번 가서 살아본다는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누이동생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면 놔줘라. 그러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여보, 요새 잘 자시고 다니시오. 어쨌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도 좋겠지요." 하면서 그저 보약이래도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다려서 병에 담아서 그 집으로 심부름을 시켜서 보내고, 또 그것도 싫다면 고만 두고, 싫다는 거 일부러 하지 말고 만나는 게 싫다 하면 만나지도 말고 편안하게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인은 내 말을 듣고 잊어버리고 살 양으로 그저 장사라도 하려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작은 부인이 거덜나게 만들었어요. 쓴 사이도 없이 거덜이 났거든요. 작은 마누라가 그냥 죄 긁어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니까 그 남편이 미안해서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바깥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여보, 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선에 혼자 있을 동안만이라도 애들의 아버지가 돼 주고, 나는 그저 당신 뒷바라지한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편안하게 만날 사람 만나고 하시오. 애들한테는 당신이 하늘이고 기둥이고 주춧돌인데 만약에 당신이 쓰러진다면 큰일나지 않소. 나는 어쨌든 간에." 그러곤 눈물을 흘리니까 "참, 당신은 사람도 아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소."하면서 "그래, 질투도 안 나오?"이러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질투를 낸다면 당신이 얼마나 괴롭겠소."하니까 그때서부터 마음을 잡아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그 마누라를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나중에 얻은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 보고 난 왔습니다마는 지금 십이층이라나 십삼층이라나 빌딩을 가지고 잘 삽니다.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러주던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안되더라는 거죠, 얼마 가지도 않아서 안되더라 이거야. 그거는 인내가 필요한 건데 말이죠.

> 석존의 마음 꿰뚫어 보려면
> 자신의 마음부터 알아야

그리고 여러분이 시주를 하시더라도 함이 없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주하는 것도 주인공에 아주 지극 정성으로 다 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시주를 해도 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오려면 돈을 주는데 돈 준 것만 생각을 하고 물건 가져오는 거는 생각 안 합니다. 돈 준 거를 뇌리에 꼭 새겨둡니다. 돈을 주고서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가져갈 생각도 안하고 그냥 돈만 주고선 있으니 그 사람 오면 돈 줘야겠다 하고 있으니 물건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돼도 안 되더라. 그러니 돈 내놔라.' 이럴 수 있는, 백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백, 아니 수천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자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물 몇 살서부터 이러니까요. 그랬는데 참 그때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자유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 그린 그 백원, 그걸 세 개 씩 갖다 놓고도 그냥 갔거든요. 써놓고 가고,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그냥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네들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삼분의 일은 그렇게 가지 않고 방황하는 거 같습니다. 왜, 삼분의 이는 그렇게 가는데 삼분의 일은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 누가 밥도 못 먹을 지경이라면 도와서, 학비를 못 낸다 하면 도와서 해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조금 더, 정말 절이 자리가 잡히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죠. 앞의 것 해결치 못하고 뒤의 것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학비를 못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먼 데 것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앞에서부터 해나가야지. 그러기 때문에 시주가 많이 들어와도 없는 신도님들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고 감이 없이 그 뼈저리고 눈물어린 마음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가련한 자기 의식 자체에 과거로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고 있는 그 마음을 믿고, 자기 과거에 살던 의식을 현재의식이 믿고 주인공이라 칭한 것이니까, 주인공이라 칭한 것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이고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 거기에 직결돼 있으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사신다면, 우리가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이죠. '당신밖에는 즐겁게 해줄 수 없어!' 하구선 놓고, 안 될 때에는 '당신밖에 병을 낫게 할 수 없어!' 그러고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어!' 하고 거기 놓을 때 바로 그게 돌아갑니다. 체가 없는 거니까. 광명과 같고 전력과 같고 자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력이 한데 합쳐지고 부합이 되니까 통신력도 생기고 거기에서 광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밝음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바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다니는 겁니다. 흙은 흙대로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고,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기 때문에 여기 붙는 겁니다. 이런 도리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들어가면 천체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또는 의학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전체 종합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놓은 것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서 없이 여러분 앞에 얘길 했지만 여러분은 자기와 자기 마음을 변치 말고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끌고 나온 자기 주인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런다면 정말이지 주인공 죽이는 법이 없이 끌고 갈 겁니다. 주인공이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놓고 우리 도반으로서 열심히 해봅시다. 꼭!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9년 9월 24일 제주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대) (02)737-6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청아출판사
www.chungabook.co.kr 전화 337-3485(대) FAX 336-2381

외로운 가을,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헌 옮김 | 신국판 변형 | 값8,500원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의 정을 키웁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지만 이 충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주십시오.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조금의 가식도 없는 순수한 연민으로 삶의 인륜, 상황, 역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짤막한 조언들을 담았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호탕한 웃음까지 터트리면서 달라이 라마의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비로 살아 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